2028 대입 개편… 학생부 정성평가 확대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은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을 골자로 하며,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을 정량적 수치에서 정성적 기록으로 전환하고 있다.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낮아짐에 따라 주요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실질적인 학업 역량을 검증한다.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시행계획과 5개 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전 대비 전략을 분석한다.

◆내신 1등급 확대와 수행평가 영역명의 중요성

내신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 사이의 변별 해상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대학은 이제 등급 숫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학생부 세부 항목에서 확인한다. 동국대학교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대학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분석하기 전 '수행평가 영역명'을 통해 수업의 난이도와 탐구의 성격을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독서 보고서'와 같은 평이한 명칭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신 '탐구 주제 + 탐구 방법'이 결합된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계 분석을 활용한 사회 문제 데이터 시각화 및 해결 방안 제안'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명은 변별력이 약화된 환경에서 학생의 전공 수학 능력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통합형 수능의 역설과 과목 이수 현황의 가치

수능이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으로 전환되면서 수능 점수만으로는 학생의 심화 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학은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의 '과목 이수 현황'을 정교하게 평가하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정시 지역균형전형에서 교과평가를 40% 반영하고 일반전형에서도 20%를 적용하며,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역시 정시 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시 지원자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에서 전공 관련 권장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탐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이다.

◆나열식 기록의 몰락과 탐구과정의 구체성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동의 결과만을 나열하는 방식은 변별력을 상실한다. 대학은 학생이 어떤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탐구하고, 그 결과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은 '설계', '분석', '비평', '디버깅'과 같은 전문적인 행위 동사를 사용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을 도전적으로 선택했는지는 대학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문적 깊이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은 점수가 아닌 기록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명하는 구조다. 수험생은 고교 3년 동안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각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 구체적인 탐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특히 교과 지식이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실무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카드업계와 역마진

기자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마진이라는 간단한 개념이 있다. 마진은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서는 마진이 남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영위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기본 공식은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카드업계에서 이 공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여신전문채권(여전채) 금리와 카드론 금리가 엇박자를 내면서다. 여전채 금리는 지속해서 상승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AA+ 등급 3년물 금리는 3.6%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보다 약 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즉 '원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판매'에 해당하는 카드론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카드사 9곳의 2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04%~14.21% 사이에서 형성됐다. 13.07%~14.40%였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평균 하단은 0.03%포인트(p), 평균 상단은 0.19%p 하락했다.

자연스레 수익성은 악화일로 상태에 빠졌다. 실제 카드업계에서는 현대카드, 우리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 수익 제한까지 겹치면서 업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마땅한 수익원이 없는데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채권값 급락)하면서 여전채 금리 상승 압력도 커졌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익원이 없다면 그 역마진의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돌아간다. 카드 이용자 혜택은 축소되고, 대출 금리는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미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라 혜택이 많은 '혜자 카드'를 단종시키고, 무이자 할부, 적립 혜택 등을 축소하고 나섰다.

핵심은 수익원 창출이다.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존 신용판매 패턴을 유지하며 차별성 없는 카드 상품만 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안면으로 결제하는 '페이스 페이' 등이 확산되는 등 변화하는 고객 결제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카드 산업도 마진이 남아야 지속될 수 있다. /wotjs4187@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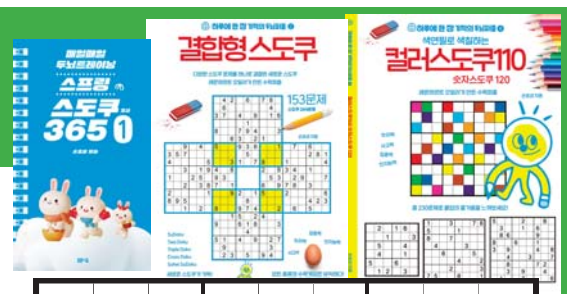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눈팔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5		1			8	
9	8						7	
		2				5		
			7		3	1		6
			4		1			
2		7	9		5			
		4				7		
	7						6	5
	5			7		8		9

9	8				5			
6		2				7		
		7	2	1				
7	2		1		9			
		5		2		8		
			5		8		7	4
				5	7	4		
		9				3		6
			3				9	7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5	7	2	1	4	9	6	8
6	1	2	8	9	3	7	4	5
4	3	5	7	2	6	8	1	9
1	9	6	5	3	8	2	7	4
7	2	8	1	4	9	6	5	3
8	4	1	3	6	2	5	9	7
2	6	3	9	5	7	4	8	1
5	7	9	4	8	1	3	2	6
9	8	4	6	7	5	1	3	2

9	2	8	4	6	7	1	5	3
1	7	9	2	3	8	4	6	5
8	2	4	6	5	9	7	3	1
2	1	7	9	6	5	3	4	8
5	6	3	4	8	1	2	9	7
4	9	8	7	2	3	1	5	6
7	3	2	8	9	6	5	1	4
9	8	1	5	4	2	6	7	3
6	4	5	3	1	7	9	8	2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5일 (음 1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60년생** 가까운 사이라도 비밀은 쉽게 누설하지 마세요. **72년생** 주변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84년생** 오늘 하루는 심신이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4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상기하세요. **61년생** 주변사람들과의 감정싸움을 주의하세요. **73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이 있습니다. **85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50년생 가능한 단정한 옷차림으로 외출하세요. **62년생** 북적북적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74년생** 식탐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심플한 액세서리를 착용해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51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3년생** 몸조심, 말조심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75년생** 술자리에서 과음은 건강에 독이 됩니다. **87년생**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52년생 갑작스럽게 즐거운 모임이 생기게 됩니다. **64년생**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76년생** 업무 중 상해를 조심하세요. **88년생** 건강에 유의하며 하루를 보내세요.

53년생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65년생** 피로가 쌓여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77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89년생** 어려움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54년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66년생** 뜻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78년생** 계획한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욕심을 부리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55년생 시비거리가 생기니 주의하세요. **67년생** 모든 일에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79년생** 언쟁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91년생**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할 것 입니다.

56년생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세요. **80년생** 고집은 하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92년생** 소극적인 자세로 행동하도록 하세요.

57년생 혼자만의 힘으로 큰 일을 해결합니다. **69년생** 여유롭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81년생** 나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93년생** 사소한 일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58년생 여유를 갖고 하루를 돌아보세요. **70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82년생** 서두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94년생** 윗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5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세요. **71년생** 사랑을 베푸는 하루를 보내세요. **83년생** 항상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95년생**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김상회의 四季

지나친 재성

사람들이 재물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풍요가 부러워서다. 사주에 재성이 발달하면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발달한 재성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한다. 강한 재물의 기운이 오히려 주인을 압박해서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을 벌다가 몸을 돌보지 않아서 큰 병을 얻거나 가족 사이에 재산싸움이 벌어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혹시 배우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까 싶어 결혼을 못 하는 사람도 있다. 큰 재산을 얻었지만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는 사람도 봤다. 사업은 번창하는데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는 일을 당하기도 한다. 재물의 기운이 너무 커서 사람의 기력이나 운세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재물의 무게에 사람이 눌려버리니 방향의 길을 택할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지나치게 발달한 재성이 사람을 압박할 때의 해법은 나눔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가 그것이다. 보시는 단순히 남을 돕는 선행에 그치지 않는다. 움켜쥐고 있는 기운을 일부러 내려놓아 전체적인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 재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강하게 쥐고 있으면 손도 어깨도 몸도 아프기 마련이다. 삶에 무리가 오는 것이다. 그런 때 손을 슬며시 풀어 가진 것을 나누면 무거운 재물의 기운이 가벼워진다.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자비가 되고, 자비가 쌓이면 공덕이 된다. 재성이 지나치게 발달한 사주는 넘치는 기운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필요한 데 공덕이 그 통로가 된다. 나눔으로 쌓은 공덕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강한 재성의 부작용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지나친 재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해보시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